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

허 광 섭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이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공세를 물리치면서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가고있다. 오늘에 와서 사회주의의 진로와 그 승리의 필연성은 전적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달려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이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력사적사명을 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성격에 대하여 똑바로 인식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이미 이러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감행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제자주력량에 대한 공세에서 주되는 대상은 우리 공화국이었으며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는데 목적을 둔 류레없이 악랄하고 횡포한것이였다.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조국보위전에서 우리는 군력강화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 혁명적무장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조국이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는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회주의수호전은 그 폭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수호전과는 다른 새로운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된다. 이미 이룩된 승리와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와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이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무엇보다먼저 경제생활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경제강국건설은 인민들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오늘 전면에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사회주의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그들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간직할수 있으며 군사강국의 지위도 더욱더 공고한것으로 만들수 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지금 정치, 군사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대조선압살정책을 경제적제재와 압박으로 실현해보려고 그 어느때보다도 미친듯이 광분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은 사회주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요하고도 심각한 투쟁으로 되며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뿐아니라 공장과 농장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생활하고있는 모든 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농업전선과 과학전선은 오늘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특별히 중요한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해

야 할 주타격방향이다.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어디까지나 먹는 문제이다. 그 어떤 원쑤도 범접 못하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다져놓았으며 허리띠를 조이면서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한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만 풀리면 적들의 그 어떤 고립압살책동도 절대로 통할수 없다.

지금 적들은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밥상에서부터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배심있게 해나갈수 있다.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은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알곡과 남새, 축산과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자면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며 종자혁명을 다그치고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체계를 확립하여 축산을 활성화하고 알곡생산을 늘이며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남새와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식의 우월한 관리방법인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 높은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발휘하며 자체의 힘으로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여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를 적극 실

현하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킬뿐 아니라 밥술을 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사를 함께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농사일을 알뜰하고 끈지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과학기술을 떠나 강성국가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으며 과학기술발전에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더우기 제국주의자들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독점하고 그것을 간섭과 제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조건에서 과학전선에서의 승리는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21세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짧은 기간에 CNC기술의 패권을 틀어쥔 련하기계 개발자들은 물론 우리 조국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쏘올린 위성과학자들도 다 집단적혁신의 불길로 세계를 경탄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처럼 최첨단돌파로 최후승리의 지름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적안목과 민족적자존심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리는데서도 최첨단돌파의 선구자, 패권자가 되고 쟁쟁한 재사가 되기 위한 투쟁에서도 서로 돕고 이 끌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적극 도와나서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가 과학기술적 성과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농업전선과 과학전선을 비롯한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승리의 개가가 울

려퍼져 나라의 쌀독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세상을 놀래우는 최첨단과학기술성공들이 뽐뽐 쏟아져나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면 우리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가 더는 어찌지 못하는 억척의 만년보루가 되게 된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다음으로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한편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우리 군인들과 청소년들을 노리고 썩어빠진 반동사상문화를 쉬임없이 들이밀고있다.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지난날에는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서는 제국주의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사상의 우월성과 위력이다. 물질만능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생명이라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이 생명이다.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인민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의거하여 우리는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략후와 빈궁만이 흐르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락원을 보란듯이 일떠세웠다. 우리는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사회주의사상의 과학성과 그 정당성으로 적들의 반사회주의적사상공세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취약성과 추악한 정체를 날날이 발가놓는 단수높은 대적언론전, 전파전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아야 한다. 우리는 원썩들에게는 철추를 내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심을 주는 사상의 미싸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 오늘의 혁명적사상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반사회주의적심리모략선전에 열을 올린다고 하여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적들의 책동에 넘어가거나 제국주의사상문화에 현혹되지 않을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류가 달성한 최성과 학기술의 성과를 도용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는데 대처하여 대외선전수단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인터넷망을 우리 사상과 문화의 선전마당으로 만들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 국제무대에서 적들의 선전수단들을 엿어매놓고 우리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사상문화생활분야에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내부적으로는 온갖 위법현상과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쓸어버리기 위한 공격전이다.

사람들의 사상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다. 만일 반동사상과 문화의 침투를 막기 위한 사상공세의 도수를 약화시키거나 순간이나마 방임한다면 온갖 잡사상, 잡귀신들이 쏴어들어와 사람들의 머리속에 쉬가 쓸게 할수 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사회주의사상, 집단주의사상보다도 개인주의사상, 황금만능의 부르쥬아사상이 자리잡게 되면 사회와 집단보다도 자기 하나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정신적불구자로 되게 되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어 사회주의를 안으로부터 쪼먹게 된다.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는 물

론 최근년간 리비아와 예집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진 정권교체와 혼란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습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적독소인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미는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고 우리 내부에 단 한건의 불순선전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부르조아사상문화를 밀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사상투쟁과 법적통제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원래 황금만능, 약육강식을 설교하는 부르조아사상문화를 배척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본성이다. 이것은 사상문화령역에서 사회주의가 제국주의를 압도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이 담겨져있고 민족적향취가 넘쳐나는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는것이 중요하

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있는 위치와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말그대로 변혁을 가져와야 한다.

특히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워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보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함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이며 약동하는 기백, 우리 식의 정서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좀먹고 파괴하는 부르조아사상문화에 스스로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속도창조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며 제국주의의 썩어빠진 반동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함으로써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할것이다.